

Jurgen Moltmann, *Theology of Hope*, translated by James W. Leitch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The God of promise and exodus, the God who has raised Christ and who lets the power of the resurrection dwell in us, is the ground for active and for passive hope.

희망의 신학자 Moltmann 은 계약과 출애굽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거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능동 적이고 수동적인 모든 희망의 근거이다라고 했다. ¹

The sin of despair

If faith thus depends on hope for its life, then the sin of unbelief is manifestly grounded in hopelessness. It is usually said that sin in its original form is man's wanting to be as God. But that is only one side of sin. The other side of such pride is hopelessness, resignation, inertia and melancholy. From this arise the *tristesse* and frustration which fill all living things with the seeds of a sweet decay. Among the sinners whose future is eternal death in Rev. 21:8, the 'fearful' are mentioned before unbelievers, idolaters, murders, and the rest. For the Epistle to the Hebrews, falling away from the living hope, in the sense of being disobedient to the promise in time of oppression, or of being carried away from God's pilgrim people as by a flood, is the great sin which threatens the hopeful on their way. Temptation then consists

not so much in the titanic desire to be as God, but in weakness, timidity, weariness, not wanting to be what God requires of us.

만일 믿음이 희망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믿지않는 죄는 명백하게 절망에 그 근거를 둔다. 흔히 원죄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죄의 한 면 일 뿐이다. 죄의 다른 한면은 절망이고, 체념이고, inertia (둔항)이고, 우울증이다.

요한계시록 21:8 에 영원한 사망에 들어간 죄인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 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을 쳐들기 전에 두려워하는 자들을 먼저 거론했다. 히브리서에서도 소망을 잃는 것 은 큰 죄라고 했다. 그러므로 시험은 하나님같이 되려는 거대한 욕망에 있는 것이 아 니라 연약함과 두려움과 지침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것이 되지 않 으려는 것에 있다. ²

God honors him with his promises, but man does not believe himself capable of what is require of him. That is the sin which most profoundly threaten the believer. It is not the evil he does, but he good he does not do, not his misdeeds but his omission, that accuse him. They accuse him of lack of hope. For these so-called sins of omission all have their ground in hopelessness and weakness of faith. It is not so much sin that plunges us into disaster, as rather despair, said Chrysostom.

하나님은 인간을 계약과 약속으로 존중하는데 인간은 자기에게 요구된 것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믿는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신자를 위협하는 죄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행하는 악행이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음이 죄이다. 그의 못된짓이 죄가 아니라 그의 태만이 되가 된다는 것이다. ³

¹ Jurgen Moltmann, *Theology of Hope*, translated by James W. Leitch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9.

² Jurgen Moltmann, *Theology of Hope*, translated by James W. Leitch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22.

³ Jurgen Moltmann, *Theology of Hope*, translated by James W. Leitch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23.

왜냐하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소위 이런 태만죄는 절망과 믿음의 결여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우리를 비참으로 쳐넣는 것이다.⁴

Joseph Pieper has shown how this hopelessness can assume two forms: it can be presumption, and it can be despair. Both are forms of the sin against hope. Presumption is a premature, self-willed anticipation of fulfillment of what we hope for from God. Despair is the premature, arbitrary anticipation of non-fulfillment of what we hope for from God. Both forms of hopelessness, by anticipating the fulfillment or by giving up hope, cancel the wayfaring character of hope. They rebel against the patience in which hope trusts in the God of the promise. They demand impatiently either fulfillment 'now already' or 'absolutely no' hope.

Joseph Pieper 에 의하면 절망은 두가지 형태를 띤다: 하나는 주제넘음/가정 (presumption) 이고 다른 하나는 절망이다. 둘다 희망에 대해 죄이다. 가정은 (presumption) 하나님에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빨리 서둘러 성취하려는 아집적인 (self-willed) 기대이다. 절망은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것에 대한 성취를 못하리라는 때아닌 (서두르는), 멋대로의 기대이다. 두가지 절망의 형태 모두 성취를 서둘러 기대하거나 포기하거나 희망의 wayfaring (여행하는) 성격을 취소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소망이 가지는 인내성에 대해 반항한다. 그들은 '당장 이미' 성취나 혹은 완전히 절망 중 하나를 요구한다.⁵

⁴ Jurgen Moltmann, *Theology of Hope*, translated by James W. Leitch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23.

⁵ Jurgen Moltmann, *Theology of Hope*, translated by James W. Leitch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23.